

개혁주의학술원 특강
마르틴 카터 총장 (아플도른)
번역: 이신열교수
2024. 3.20

가르치면서 설교하기
기도하는 법과 믿는 법 -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본

히브리서 설교는 회중의 영적 쇠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신학은 '복음의 신실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지닌 복잡한 역학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데 전념합니다.'(Swinton & Mowat, 4). 히브리서는 이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설교는 회중의 영적 쇠퇴라는 주제를 다루고 다룹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궁극적인 현실, 하늘에 살아 계신 왕이자 제사장인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감각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무딘 청각'일 것입니다.

회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듣는 현상에 대한 몇 가지 탐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양면 현상으로서의 의사소통을 많이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a.o. 소워드, 2017; 오토, 1987). 이 탐구는 히브리서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vivendum Deum)에 대한 기술에 관한 것이며 실천신학은 실천과 교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칼빈이 어떻게 프락시스와 피에타스가 송영으로서 기독교 교리와 얽혀 있는지 보여준 후, 프린스턴 신학자 찰스 하지(1797-1878)는 삶과 신학 사이에 동일한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생인 청중과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쁜 신학은 종종 죽어가는 종교적 감정(애정)에서 자라난다고 주장하면서 경건을 신학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람의 종교적 견해가 그의 종교적 감정의 결과이자 표현이라면, 이단은 경건을 잃는 원인이 라기 보다는 그 결과라면, '열심히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본이 거기에 있느니라'(잠 4:23)." 신학과 예배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잘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lex orandi - lex credendi* 규칙으로 공식화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열쇠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이 규칙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말보다 차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쇠퇴의 질병에 대한 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에서 나온 몇 가지 치료법을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중간 부분이 있는 삼부작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인데 중간 부분이 주요한 장면입니다. 중간은 왼쪽 및 오른쪽 패널과 함께 메인 장면으로서 가장 큰 부분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1. 경청에 대한 간략한 현상학적 탐구

설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변화를 촉구하는 것, 즉 마음과 손을 움직이기 위해 머리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사회에 일이 잘못되면, 행동과학자 및 뇌 연구자들은 정

신적 과정에 대한 온갖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설교학 분야 내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고 구현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종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밝혀지며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덜 합리적입니다. 이는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를 구별한 노벨상 수상자 Daniel Kahneman이 주장한 것입니다(Kahnemann, 2011). 우리 마음 속의 두 캐릭터, 즉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비유하여 정신 생활을 설명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시스템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의 비밀 작성자입니다. 시스템 1은 또한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세상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시스템 1은 한 순간에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2는 주의가 필요하며 시스템 2가 사라지자마자 이 시스템 2가 교란됩니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충동적인 신호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직 시스템 2만이 필수적인 결정에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느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 2의 특징은 자동 조종 장치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2는 다소 게으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배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 게으름이 빠르게 발생합니다. (번쩍이는) 이미지의 사용은 첫눈에 알아보는 방식과 결정을 다르게 유도합니다. 느린 사고의 길을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과 통찰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은 해결될 수 없지만,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존재는 우리의 감각 사용에 관한 한, 특히 듣는 것에 관해서는 설교학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을 위해 처리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천개의 단어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중요하다는 악명 높은 속담은 예배에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간청하는 데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Kahnemann이 보여준 것처럼, 이는 교회의 게으름과 피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학은 다른 과학의 다양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어의 힘을 명확하게 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즉, 한 단어가 천 장의 그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New York Times 기고자 Kate Murphy는 이 현상학적 탐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을 제시합니다. 그녀의 책에는 You Are Not Listening이 있는데 이 책의 부제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습관과 관련된 현상을 다룹니다. 듣는다는 것은 핫 토픽일 수 있지만 주로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깊은 감정, 자신의 직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의사소통 가능성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듣기는 점점 더 불필요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진실한 경청은 한 사람을 성장시킬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계속해서 히브리 회중에게로 돌릴 때, 왜 이 설교의 저자가 듣기에 그토록 강조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는 듣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단어와 일치한다는 논리적인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권면의 말씀'(히 13:22)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서 '권면'(paraklèsis)으로 사용된 단어가 '부흥' 또는 '훈계'를 의미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회중 내에는 믿음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교사나 심지어 거칠고 교묘한 폭력으로 그들의 물건을 강

탈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약해진 믿음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세디아(acedia)라고 부를 수 있는 내면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New York Times 베스트셀러 저자 Kathleen Norris는 인간 영혼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그것의 여러 측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아케디아는 수도원 역사나 중세 문학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 독자들에게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관심, '지루함' 또는 '무기력'과 같은 acedia의 표준 사전적 정의가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더 원시적인 단어로 간주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경험한 결과,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한 지루함, 광적인 도피주의, 헌신 공포증, 무기력한 절망의 대부분은 현대 의상을 입은 고대 악마로서 아케디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orris, 2008). 만성 정신 빈혈(신체 조직에 적절한 산소를 운반할 만큼 건강한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의 결과로 청력이 둔해지고(히 5:11), 손이 절고 무릎이 끄덕이는 증상(히 5:11)이 나타납니다. (고전 12:12) 그들은 동료 신자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거나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며(히 3:1, 14: 4:11, 6:4) 점차 교회 모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와 믿음의 교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러한 피로의 징후는 '절뚝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아주 실천적인 권면이 마치 가슴과 영혼에 적혈구로서 천상의 그리스도로부터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이 설교에 주어집니다.

존 번연(John Bunyan)은 히브리 회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 여행(The Christian Journey)에 대한 그의 유명한 우화에서 그는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잠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마법에 걸린 땅에 대해 썼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삶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관해 계속해서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선한 담론에 빠지자") 그리스도인과 소망은 깨어 있습니다(Bunyan, 1999:127).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설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활동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간청과 노력이 있습니다(3:1). 그들의 영적 쇠퇴를 밝혀 주는 어떤 구체적인 원인을 지적해야 합니까?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3세대 기독교인(약 80-100)에게 미쳤던 플라톤주의의 영적 분위기의 영향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것, 멀고 이상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알아볼 수 없는 것, 접근할 수 없는 것 등등.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실존적 외로움과 영적 마비로 이어지며,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슬픈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한 (가능한) 원인이었습니까?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는 서구 국가의 많은 기독교인을 사로잡은 이신론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또한 도덕적인 자기주장, 즉 자신의 손을 가만히 두시고 요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무 것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 아들은 아니십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소위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고 불리는 기분 좋은 믿음을 가

져오는데, 폭풍우가 우리를 황폐화시키거나 전염병(Covid-19 바이러스와 같은)이 우리를 완전히 휩쓸 때 즉시 파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인의 영적 게으름에는 여러 가지 또는 다른 가능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게으름은 습관화, 게으름, 틀에 박힌 습관, 그리고 그에 내재된 피로의 모든 증상에서 비롯되는 '단지'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미 들은 비유로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며'(히 3:19) 뒤쳐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히 3:19, 4:1). 안식의 약속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기도하거나 노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

2 'Lex orandi - lex credendi'-규칙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간략한 추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lex orandi lex credendi(LOLC 규칙)? 이 규칙은 아주 빈번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방식에 결정적이 되어야 하며 또는 결정적입니다. 어쨌든, lex orandi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칙은 lex credendi를 따르고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는 어디에 있나요? 원래 이 문장에는 동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규칙을 발견했거나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의 신앙 실천에 관련되고, 신학과 관련되어 있고, 설교와 교리문답 수업의 교육과 목회적 돌봄을 통한 온전한 양성이 우리 교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규칙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이 격언이 마치 신앙 규칙 자체에 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신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여 이 규칙을 변호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전례를 철통 같은 형태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화될 것입니다. 반면 요즘은 개신교에서는 이 규칙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규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은 우리를 위한 실제 신학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실천되거나 지지되는 신학 외에 다른 신학은 없습니다(Cameron, 2004).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전혀 규칙이 아닌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 우리가 이 장에서 볼 수 있듯이 - 그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매우 자주 사용되는 의미에서 LOLC-Rule은 전혀 없으며 그 축약된 버전은 원래적 의도의 쇼트 컷 버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규칙'에 관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고 많은 실제 신학 연구에서 자리를 잡은 짧은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규칙은 역사적으로 괴물처럼 여겨졌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한 방향 또는 양 방향 소통으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2.1)를 살펴본 후 먼저 짧은 역사 여행(2.2)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이 규칙의 형성, 역사적 정보를 놓치면 '교육, 변형, 교회'의 큰 위험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살펴본 후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사용된 이 규칙(2.3)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본문(결국 강론이나 설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학에서 형성적인 역할을 했으

며, 하나님 예배의 측면과 관련된 신학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천신학적 항목을 교회와 관련된 교육과 양성으로 간주하면서 이 규칙의 사용과 오용에 대해 몇 가지 언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1 최신 기술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 현대 예전 신학의 격언 중 하나는 *lex orandi, lex credendi*라는 슬로건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예전 그 자체가 신학, 실제로 모든 이차 신학(*theologia secunda*), 즉 예전에 대한 후속적인 신학적 성찰이 파생되는 일차 신학(*theologia prima*)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Fagerberg, 2004:36-69). 따라서 예전은 일차적이며 공식화 된 교리는 이차적이고 파생적이며 종속적입니다. 이 개념은 “예배가 신학을 따른다는 일반적인 개혁주의 견해에 도전합니다.”(Moore-Keish, 2008:12). 이에 대해서 수십년간 '줄다리기'가 있어 왔습니다.

예전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배가 교리를 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리가 예전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센: 2006:227). 아주 짧은 탐구를 통해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orandi* == > *credendi*로 해석됩니다. Aidan Kavanagh와 David Fagerberg는 “기도의 법칙(*lex supplicandi* 또는 *lex orandi*)이 믿음의 법칙(*legem credendi*)을 확립한다”(Moore-Keish, 2008:63)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로는 *lex orandi*가 의미하는 것은 *lex credendi* 이전에 존재하고 이를 결정하며, 따라서 후자가 전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단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믿습니다.”(ibid.). 그러므로 예전은 일차적이며 신학을 확립합니다. 순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차적 신학은 신앙의 표현으로서 예배로부터 나옵니다.”(ibid.). *lex orandi, lex credendi*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Geoffrey Wainwright(1980), Kevin Irwin(1990) 및 Bryan Spinks(2013)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습니. 예를 들어, Spinks는 “교리가 예전에서만 흘러나왔고, 교리가 예전 관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꾸지 않았다는 생각은 경건한 허풍이자 희망사항”이라고 말합니다.(Spinks, 2013:xii). 마찬가지로, 웨인라이트(Wainwright)와 어윈(Irwin)에 따르면, 라틴어 에피그램은 예전의 고정성을 가정하지 않으며, 교회가 예전의 관행을 교리의 유일한 또는 주요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은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것이 성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정도까지만 신학을 확립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Wainwright는 라틴어 태그 *lex orandi, lex credendi*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기도의 규칙을 믿음의 표준으로 만듭니다. 즉,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주어와 술어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며 따라서 이 태그를 신앙의 법칙이 기도의 표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할 것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것을 결정합니다. 라틴어 태그의 언어적 모호성은 실제로 기독교 실천에서 예배와 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료적 상호작용에 상응합니다. 예배는 교리에 영향을 미치고 교리는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Wainwright, 1980:218). Wainwright는 *lex ordandi*에 밑줄을 긋습니다. *lex credendi*를 양방향 원리로 사용합니다; 신학과 예전은 상호 형성적입니다. 그것들은 상관 규범입니다. (같은 책, 161). 이 문제에 무게를 둔 또 다른 신학자는 폴 마샬(Paul Marshall)입니다. Marshall은 Kavanagh와 Fagerberg의 *lex orandi, lex credendi* 해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공합니다(Moore-Keish, 2008:129-151). 마샬은 예전을 '사람들

이 그 예전의 형성과 비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받는' 단순한 주어진 것으로 제시한다고 말합니다.(Marshall, 1995:129-151, 134) “신이 주신 예전으로부터 인간의 믿음에 대한 반응까지 일방통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정되고 권위주의적이며 위계적인 전례에 대한 견해”를 영속시키는 것입니다(Moore-Keish, 2008:65). 이러한 해석과 반대로, Marshall은 Prosper에게 '예배 행위를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는 단일 규범으로 가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ibid.). 오히려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Prosper의 전 반적인 요점은 믿음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책.).

2.2 역사적 배경

마지막 문단에서 논의되는 표현은 마르세유 지역의 수도승이자 레오 대왕의 비서이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열렬한 지지자인 아키텐의 프로스퍼(Prosper of Aquitaine)가 쓴 5세기의 짧은 저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신학 작품은 *Indiculus de gratia Dei, Epistolae* 또는 *Capitulae Caelestini*를 포함한 다양한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Prosper는 *a lex orandi, lex credendi (est)*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설의 다음 부분만 썼습니다: *ut Legem credendi lex statuat supplicandi*: Prosper는 이 *Indiculus*의 8장에서 다음 구절을 썼습니다.

가장 경건한 교부들은 가장 복되고 사도적인 주교좌의 불가침적인 제재를 통해 전염병에 걸린 새로운 가르침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선한 의지의 기원과 칭찬할 만한 노력의 성장,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도들의 전수를 받아 한결같이 실천되고 있는 사제 기도의 성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ut legem credendi lex statuat supplicandi*. (Wainwright, 1980:225-6, 이탤릭체 강조).

이 마지막 표현은 번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법칙[또는 규칙 또는 패턴]은 [일반적인 오란디가 아니라 '기도'] 믿는 것 (믿음이 아니라)의 법칙[또는 규칙 또는 패턴]을 확립[또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스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보편적인 예전 관행에 호소합니다. “그것이 신학적 성찰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나 최초의 원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광범위한 사도적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무어-키이시, 66). 더욱이 그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배경으로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Indiculus*(……)의 이 구절이 *De vocatione omnium gentium*의 평행 구절과 병치될 때 Prosper의 지시 대상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lex supplicandi*는 디모데전서 2:1-4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기독교 신앙을 강조합니다. Prosper의 지시대상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lex supplicandi*는 디모데전서 2:1-4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Indiculus*가 *De vocatione omnium gentium* (Van Slycke, 2004:131)의 평행 구절과 병치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프로스퍼의 주장은 디모데전서 2장의 교훈에 따라 죄인들이 회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중보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초기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예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lex orandi*와 예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너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Prosper 자신은 단지 로마 미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공동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cf. Van Slycke, 2004; De Clerck, 1994). 그러나

프로스퍼가 자신의 격언을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신학(*lex credendi*)과 예전(*lex orandi*)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인 논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Prosper라고도 불리는 Dom Guéranger(1805-1875)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는 그의 <제도와 예전>에서 유명한 축약된 버전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공리 (axiom)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은 오늘날 예전신학에 관한 토론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는 예전의 다양한 측면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예전주의자 *pur sang*으로 불립니다(히 8:1).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을 갈라놓은 신학과 예전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 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가톨릭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성찬 신학의 본질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미사의 측면(예: 로마 정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중세의 조상들처럼 16세기 가톨릭 변증론자들도 *lex orandi*가 *lex credendi*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성경은 가톨릭 교리의 원천이었지만 교회의 예전 관행과 교부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톨릭 예전 관행에 명시적인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가톨릭 변증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Thompson, 2005:4-5)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특정 성경 교리가 로마 교회의 다양한 예전 관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미사, 특히 라틴 정경의 희생 언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교리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거의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칭의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희생)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베네페시움)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학은 필연적으로 예전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개혁자들은 *lex credendi*가 '교정이 필요한 기존 예배 형태에 관해서' *lex orandi*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Irwin, 1990:16). 신학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금언인 *lex orandi, lex credendi*는 신학과 예전을 교회 생활의 두 가지 독립적인 분야로 분리하려는 현대 개신교계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유용한 교정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신학과 예전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형성적입니다. 참된 교리는 참된 예배의 기초를 형성하며, 참된 예배는 참된 교리의 표현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예전을 형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의 예배는 필연적으로 신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3 히브리서의 관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나요? 이것이 Larry Hurtado의 생각을 자극하는 연구의 제목입니다(Hurtado, 2005). 그는 예수의 죽음 직후에 놀라운 속도로 등장한 그에 대한 예리한 헌신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허타도는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예수에 대한 경외심에는 예수의 중요성에 대한 엄청난 주장과 그를 효과적으로 신성하게 대하는 헌신적 실천의 패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전 출판물 *One God, One Lord*(1998)에서 그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헌신의 실천을 언급했습니다.

- 초기 기독교 예배의 일부인 예수에 관한 찬송가;
-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심지어는 예수께 직접 드리는 기도, 특히 공동 예배에서 예수를 부르는 기도;
- 예수님을 부름: 세례, 치유, 축귀 (exorcism);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주재하시는 성스러운 식사로 제정된 그리스도인의 공동 식사.
- 기독교 예배의 맥락에서 예수를 고백함.
- 기독교 예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탁이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이해됨. (Hurtado, 2005, 27-28; cf. 1998: 100-114)

이 신학은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유래하며 일종의 예전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히브리서는 놀라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 설교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설명을 2장 1-4절에 언급된 적용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 1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3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 4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4)

무엇보다도, 이미 존재했던 신앙법(*lex credendi*)은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 그분은 존재하시며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ho lalésas*). 또는 현재 시제에서도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참조, 12:25).

-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 천사들의 전한 말씀은 확실하여 모든 범죄함이나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는 먼저 주께서 친히 전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 4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으로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1-4)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인들은 예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lex audiendi*는 *lex credendi*와 *lex orandi*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본문에 따르면 이 회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1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할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2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소식을 받았으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히브리서 4:1-2)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제공된 '듣기의 현상학적 탐구'에서 이미 살펴 보았던 내용으로 되돌아갑니다. 히브리인들은 듣기가 둔하고(5:10),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며(5:13),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배교의 큰 위협으로 이어집니다(6:12). 변형된 LOLC-규칙에 따라 히브리 회중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역사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기도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남은 *lex orandi*에는 살아있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더 이상 건전한 신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까이 가자', '꼭 붙잡자' 등의 훈계를 거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이상 깨닫지 못했고(12:22-24)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삼가했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육이나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했나요? 그는 처음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 전체는 우리가 고백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사랑과 지식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그 *lex credendi*는 관행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lex orandi*에 영감을 주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3.3.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제책

LOLC 규칙의 역사는 실제 교육과 양육에 위협이 되는 앵무새의 실제 위험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이후 초기 단어가 마치 LOLC 규칙이 매우 고전적인 규칙인 것처럼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축약된 LOLC-Rule은 교리와 신앙 실천을 함께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믿을 것이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참된 양육을 교회, 학교, 가정에서의 실제적 교육으로 간주하면서 *viva vox dei*와 같은 외적 말씀(*verbum externum*)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히브리서에 따르면 듣기는 살아 있는 믿음을 되살리기 위한 실천 신학의 훈련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중의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진리의 해설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13:22)은 권고이자 격려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lex orandi*가 *lex credendi*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적 토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신학자라면 진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입니다. (에바그리오스 폰투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기도생활은 훈련의 존재 중심에 놓여 있다. 기도는 참으로 핵심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기도는 대화와 경청, 침묵과 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꽃피우게 합니다. 확실히,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가 믿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 형성에 큰 축복이 됩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식을 듣고 심지어 우리의 목소리에서도 사랑과 두려움, 희망과 고통 등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을 듣습니다. 이러한 실천 없이는 회중을 가르치는 사역이 진

정한 축복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큰 위험이 아닌가요?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우리의 생각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lex credendi는 lex orandi의 행복을 위해 확실히 중요합니다. 교회 전체의 삶에서 오란디와 크레덴디 사이의 이러한 상호 관계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신학 훈련 기관, 대학의 신학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학과 예전 분야의 버킷 리스트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신학 교육에서 묵상과 논쟁의 상호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명상이 회랑과 대학에서의 논쟁에 안정맞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분리가 반영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천(!) 신학 분야에서도 여전히 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 소위 과학적(주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적인 묵상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적 과정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분리 뒤에 암시된 것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 사이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17세기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많은 과학적, 교회적 관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일러, 2007).

2. 건전한 신학을 위해서는 노래와 말하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TheologeIn'은 궁극적으로 doxologeIn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은 노래로 기능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학자와 찬송가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개념으로서의 신학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가”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현존을 향한 것이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로고스의 “대상”으로, 즉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Wannenwetsch, 2004:335).

3. 전례적 '시'와 신학적/교리적 '산문'을 결합하는 것의 중요성.

예배는 기독교 신학의 주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신학 서적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lex orandi로 표시되는 삶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상력과 lex credendi로 표시되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하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에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lex orandi - lex credendi 규칙은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렉스 아우디엔디 <-> 렉스 오란디 <-> 렉스 크레덴디 <-> 렉스 비벤디.

/경청에서부터 전례와 사랑을 통한 삶, 그리고 그 반대까지. 모든 부분은 네잎 클로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의 핵심은 365일 24시간 내내 봉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입니다.

이는 교실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비판적 대화를 통해 이 네

가지를 창조적 긴장 속에 유지하는 것이 실천신학의 과제입니다.